

1.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 ②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 ③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
- ④ 꿀도 약이라면 쓰다.

2. <보기>에서 밑줄 친 설명과 같은 문법 범주에 속하는 문장은?

<보기>

(가)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다 녹는다.

(나) 온난화가 북극 빙하를 다 녹인다.

‘온난화’라는 사태와 ‘북극 빙하가 녹는 사태’ 간에는 의미적으로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데, (가)에서는 이 인과 관계를 드러내는 표지로 부사격조사 ‘로’가 쓰였다. (나)는 ‘녹이다’라는 사동사를 사용한 문장이다. 주동문일 때 부사어 위치에 있던 ‘온난화’가 사동문에서는 주어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온난화’라는 현상이 ‘북극 빙하’라는 대상이 ‘녹도록’ 힘을 가하는 의미로 읽힌다. 이로써 ‘북극 빙하가 녹는 사태’에 대하여 ‘온난화’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 것처럼 보인다.

- ① 회사는 이것이 전파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우긴다.
- ② 사장이 사장실을 넓히기 위해 직원 회의실을 좁힌다.
- ③ 온갖 공장에서 폐수를 정화하지도 않고 강에 버린다.
- ④ 이산화탄소가 적외선을 흡수하여 열이 대기에 모인다.

3.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은?

- ① 이야기를 들어 보다.
- ② 일을 하다가 보면 요령이 생겨서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
- ③ 이런 일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내 심정을 모른다.
- ④ 식구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나 보다.

4.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② 당신이 가리키는 곳은 시청으로 보입니다.
- ③ 푸른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가자!
- ④ 이런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5. 띄어쓰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 일도 ∨ 이제는 ∨ 할 ∨ 만하다.
- ② 나는 ∨ 하고 ∨ 싶은 ∨ 대로 ∨ 할 ∨ 테야.
- ③ 다음부터는 ∨ 일이 ∨ 잘될 ∨ 듯 ∨ 싶었다.
- ④ 그녀는 ∨ 그 ∨ 사실에 ∨ 대해 ∨ 아는 ∨ 체를 ∨ 하였다.

6. <보기>의 ㉠을 포함하고 있는 안은문장은?

<보기>

관형사가 문장에 쓰이면 관형어로 기능한다. 그래서 관형사는 항상 관형어로 쓰인다. 즉 관형사는 문장에서 관형어로서 체언을 수식한다. 그런데 관형사만 관형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 관형사절이 관형어로 쓰이기도 한다. 즉 관형사절이 체언을 수식한다.

- ① 그는 갖은 양념으로 맛을 내었다.
- ② 꽃밭에는 예쁜 꽃이 활짝 피었다.
- ③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다.
- ④ 사무실 밖에서 여남은 명이 웅성대고 있었다.

7.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물 진화의 유전적 진화 원리가 아닌 것은?

<보기>

문화의 진화도 역시 생물의 진화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다. 문화변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난다. 첫째, 생물진화의 돌연변이처럼 그 문화체계 안에서 새로운 문화요소의 발명 또는 발견이 있어 존재하는 문화에 추가됨으로써 일어난다. 둘째, 유전자의 이동처럼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접촉함으로써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어떤 문화요소의 전파가 생길 때 그 문화요소를 받아들인 사회의 문화에 변화가 일어난다. 셋째, 유전자 제거처럼 어떤 문화요소가 그 사회의 환경에 부적합할 때 그 문화요소를 버리고 더 적합한 다른 문화요소로 대체시킬 때 문화변동을 일으킨다. 넷째, 유전자 유실처럼 어떤 문화요소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잘못되어 그 문화요소가 후세에 전해지지 못하고 단절되거나 소멸될 때 문화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생물 유기체의 진화원리를 너무 지나치게 문화의 진화에 그대로 비유해서는 안 된다. 문화는 유기체의 진화와 유사하지만 초유기체이기 때문에 생식과정에 의한 유전과는 다른 학습과 모방에 의해 진화되기 때문이다.

- ① 돌연변이
- ② 유전자 유실
- ③ 유전자 제거
- ④ 적자생존

8.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책에는 이론이 체계적(體系的)으로 잘 정립되어 있다.
- ② 신문에서 사건의 진상에 대해 자세히 보고(報誥)를 했다.
- ③ 그는 이미지 제고(提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 ④ 그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명세(有名稅)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9.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보기〉

독일어식이나 일본어식으로 사용해오던 화학 용어가 국제기준에 맞는 표기법으로 바뀐다. 산업자원부 기술 표준원은 주요 원소 이름 109종과 화합물 용어 325종의 새 표기법을 KS규격으로 제정, 다음 달 6일 고시해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표기법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에 가깝게 정해진 것으로, ‘요오드’는 ‘아이오딘’, ‘게르마늄’은 ‘저마늄’ 등으로 바뀐다. 화합물 용어도 구성 원소 이름이 드러나도록 ‘중크롬산칼륨’을 ‘다이크로뮴산칼륨’으로 표기한다.

예외적으로 ‘나트륨’과 ‘칼륨’은 갑작스러운 표기 변경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대로 표기를 허용하되 새 이름 ‘소듐’, ‘포타슘’도 병행해 사용토록 했다. 또 ‘비타민’도 당분간 ‘바이타민’을 병행 표기한다.

- 2005.03.30.자 ○○신문

- ① ‘요오드’가 ‘아이오딘’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에 가깝다.
- ② ‘저마늄’은 화합물의 구성 원소 이름을 드러낸 표기이다.
- ③ ‘나트륨’보다는 ‘소듐’이 국제기준에 맞는 표기법이다.
- ④ ‘비타민’이라는 용어는 KS규격에 맞지 않으므로 쓰지 않아야 한다.

10.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표현법과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순이, 별레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동해 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고웁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 ① 풀은 눕고 / 드디어 울었다
- ②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 ③ 구름은 / 보랏빛 색지 위에 /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
- ④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 그 물결 위에 /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 그 마음 흘러라

11. <보기>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한다.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가 실제 세계의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가령, ‘사과는 과일이다.’는 실제 세계의 사실과 일치하므로 참인 명제지만 ‘새는 무생물이다.’는 실제 세계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거짓인 명제이다. 이와 같이 명제가 지닌 진리치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조건을 진리 조건이라고 한다. 명제 논리의 진리 조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명제는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하며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거나 참이면서 거짓인 경우는 없다. 명제 P가 참이면 그 부정 명제  $\sim P$ 는 거짓이고  $\sim P$ 가 참이면 P는 거짓이다. 명제 P와 Q가 AND로 연결되는  $P \wedge Q$ 는 P와 Q가 모두 참일 때에만 참이다. 명제 P와 Q가 OR로 연결되는  $P \vee Q$ 는 P와 Q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참이기만 하면 참이 된다. 명제 P와 Q가 IF ... THEN으로 연결되는  $P \rightarrow Q$ 는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면 거짓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참이 된다.

- ① 명제 논리에서 ‘모기는 생물이면서 무생물이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명제 논리에서 ‘파리가 새라면 지구는 둥글다.’는 거짓이다.
- ③ 명제 논리에서 ‘개가 동물이거나 컴퓨터가 동물이다.’는 참이다.
- ④ 명제 논리에서 ‘늑대는 새가 아니고 파리는 곤충이다.’는 참이다.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표현 방식이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사랑하는 임 오신 날 밤이거든 구비구비 퍼리라

- ①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② 무사(無事)한세상이병원이고꼭치료를기다리는무병(無病)이곳곳에있다
- ③ 노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 ④ 내 마음 속 우리 님의 고운 눈썹을 / 즈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13.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기존의 대부분의 일제 시기 근대화 문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대립적인 두 가지 주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즉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조선에서는 근대적 변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과, 일제의 조선 지배는 한국 근대화를 압살하였기 때문에 결국 근대는 해방 이후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두 주장 모두 일제의 조선 지배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이 주체적으로 대응했던 역사가 탈락되어 있다. 일제 시기의 역사가 한국 역사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민족 해방 운동 같은 적극적인 항일 운동뿐만 아니라, 지배의 억압 속에서도 치열하게 삶을 영위해 가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해 나간 조선인의 역사도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일제의 조선 지배는 한국에게서 근대화의 기회를 빼앗았다.
- ② 일제의 지배에 주체적으로 대응한 조선인의 역사도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 ③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조선에서는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④ 조선인들은 일제하에서도 적극적인 항일 운동으로 역사에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14. 어문 규범에 맞게 표기한 것은?

- ① 제작년까지만 해도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았지요.
- ② 범인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③ 욕구가 억눌린 사람들이 공격성을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④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충고를 겸허히 받아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5. 외래어 표기가 올바른 것으로만 묶은 것은?

- ① 플랭카드, 케익, 스케줄
- ② 텔레비전, 초콜릿, 플래시
- ③ 커피숍, 리더십, 파마
- ④ 캐비닛, 로켓, 슈퍼마켓

1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서술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불이에요? 근데…… 곱빼기면 오천오백 원 아니에요? 소희가 메뉴판을 가리키며 묻자 여자가 역시 메뉴판을 가리키며 맵게 추가하면 오백 원이라고 말했다. 모든 메뉴 아래 빨간 고추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오백 냥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백 원이냐요?  
여자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계산지를 꺼내 표시를 하고는 큰 인심 쓰듯이 말했다.  
여기는 매운맛 소스를 안 쓰고 청양고추 유기농으로 맛을 내거든.  
청양고추요?  
그러니까 다만 오백 원이라도 안 받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장사가 안 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육천 원이면 찌개용 돼지고기 한 근을 살 수 있다. 곱빼기도 말고 맵게도 말고 그냥 사천오백 원짜리 짬뽕을 먹을까 하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에 올게요.  
그럼, 그러든지, 하더니 여자는 아니, 그럴 거면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지, 젊은 사람이 어찌 매가리가 없이, 하고는 계산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계단을 내려 오면서 소희는, 매가리가 없이, 매가리가 없이, 하고 중얼거려 보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 ① 추가 요금을 받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려 했다.
- ②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식당 종업원들이 겪는 고충을 전하려 했다.
- ③ 짬뽕 한 그릇을 사먹는 것도 망설여야 하는 청년 세대의 가난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 했다.
- ④ 소극적인 젊은이들의 의사 표현 방식을 비판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독려하려 했다.

17. 어문 규범에 맞는 단어로만 묶은 것은?

- ① 곱곰이, 간질이다, 탁달하다
- ② 통채, 발자육, 구렛나루
- ③ 귀뜸, 헬쓱하다, 널찍하다
- ④ 대물림, 구시렁거리다, 느지막하다

18. 같은 의미의 '견'자가 사용된 사자성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견마지로 - 견토지쟁
- ② 견문발검 - 견마지성
- ③ 견강부회 - 견물생심
- ④ 견원지간 - 견리사의

19. <보기>의 (가)~(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백호 임제가 말에 올라타려 할 때 종이 나서서 말했다.  
“나리, 취하셨습니다. 한쪽은 짚신을 신으셨네요.”  
그러나 백호가 냅다 꾸짖었다. “길 오른쪽을 가는  
이는 내가 가죽신을 신었다고 할 테고 길 왼쪽을 가는  
이는 내가 짚신을 신었다고 할 게다. 내가 염려할 게  
뭐냐.” 이것으로 따져보면 천하에서 밭보다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없지만 보는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서  
가죽신을 신었는지도 분간하기 어렵다.

(나) 늙은 살구나무 아래, 작은 집 한 채! 방은 시렁과 책상  
따위가 삼분의 일이다. 손님 몇이 이르기라도 하면  
무릎이 부딪치는 너무도 협소하고 누추한 집이다.  
하지만 주인은 편안하게 독서와 구도(求道)에 열중  
한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 작은 방에서 몸을 돌려  
앉으면 방위가 바뀌고 명암이 달라지지. 구도란 생각을  
바꾸는 데 달린 법, 생각이 바뀌면 그 뒤를 따르지 않을  
것이 없지. 자네가 내 말을 믿는다면 자네를 위해 창문을  
밀쳐줍세. 웃는 사이에 벌써 밝고 드넓은 공간으로  
올라갈 걸세.”

(다) 어항 속 금붕어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지만,  
금붕어도 둥근 어항 바깥의 물체들의 운동을 지배하는  
과학 법칙들을 정식화(定式化)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힘을 받지 않는 물체의 운동을 우리라면 직선  
운동으로 관찰하겠지만, 어항 속 금붕어는 곡선운동  
으로 관찰할 것이다. 그럼에도 금붕어는 자기 나름의  
왜곡된 기준 틀(Frame of Reference)을 토대로 삼아  
과학 법칙들을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법칙들은  
항상 성립하면서 금붕어로 하여금 어항 바깥의 물체  
들의 미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금붕어가 세운 법칙들은 우리의 틀에서 성립하는 법칙들  
보다 복잡하겠지만, 복잡함이나 단순함은 취향의 문제  
이다. 만일 금붕어가 그런 복잡한 이론을 구성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타당한 실재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 ① (가)의 임제는 사람들이 주관적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  
한다고 여겼다.
- ② (나)의 집주인은 객관적 조건과 무관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상을 수용했다.
- ③ (다)의 금붕어는 왜곡된 기준 틀로 과학 법칙을 수립  
할 수 있다.
- ④ (가), (나), (다)는 주관적 인식의 모순을 분명하게 밝혔다.

20. <보기>의 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돌담 기대 친구 손 붙들고  
토한 뒤 눈물 닦고 코 풀고 나서  
우러른 잿빛 하늘  
무화과 한 그루가 그마저 가려섰다.

이봐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친구는 손 뺐아 등 다스려 주며  
이것 봐  
열매 속에서 속꽃 피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일어나 들어서 검은 개굴창가 따라  
비틀거리며 걷는다  
검은 도둑팽이 하나가 날새게  
개굴창을 가로지른다.

- ① 잿빛 하늘은 화자가 처한 현실의 반어적 형상이다.
- ② 화자는 굳은 의지로 전망 부재의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
- ③ 속으로 꽃이 핀다는 것은 화자가 내면화된 가치를  
지녔음을 뜻한다.
- ④ 도둑팽이는 현실의 부정에 적극 맞서야 함을 일깨우는  
존재다.